

# '컬러풀' 탄소복합재 시대 개막

### 탄소융합기술원, 색 구현 힘든 복합재에 선명한 색상 구현 전착 도장기술 개발 환경오염 문제 대두된 크롬도금 대체 가능...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주목

전주시가 강도가 높고 가벼워 미래 첨단소재로 각광받는 탄소복합재에 다양한 색상을 입힐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탄소복합재의 활용도와 적용분야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먹거리산업인 탄소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출연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창의융합 R&D사업인 '탄소복합부품 고품위 전착도장 신공정 기술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기술원은 지난 2016년부터 도내 중소기업인 대영엔지니어링(주)와 함께 다양한 색을 구현하기 힘든 탄소복합재에 선명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전착 도장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2년간의 연구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이번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탄소복합재 전도성 부여 기술과 대영엔지니어링(주)의 고품위 전착 도장기술의 융합으로 탄소복합재 뿐만 아니라 각종 절연부품의 전착 도장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 기술은 상용화된 크롬도금

을 대체할 수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됐던 크롬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이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대영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연말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국제 표면처리 박람회에서 항공·우주·자동차 관련 복합재료업체 약 80여곳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재 10개 업체와 구체적인 구매 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몇몇 업체는 지난 2월 대영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현장 답사를 마치고도 했다.

대영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 50여억

원을 투자해 이번 기술개발에 성공한 전착도장처리 라인을 증설하기도 했다.

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이번에 개발된 탄소복합재 도장기술이 탄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사업 창출, 신규고용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융합기술원 관계자는 "다양한 색을 입히기 어려웠던 탄소복합재에 선명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전착도장기술이 개발되면서 탄소복합소재의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전주가 컬러풀 탄소복합재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탄소관련 기술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알고도 저질렀어”

### 미성년자 성매매 30대 징역 1년·집유 2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재 부장판사)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이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유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전북 완주군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14)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직후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2차례 더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 대가로 B양에게 현금 15만원과 2만원 상당의 영양제 1박스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0대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동취재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골든타임

전주시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일 본청 4층 회의실에서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계 셋거라'

### 전주시, 23일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분양 기간 단속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분양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통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폼다방) 등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특

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분양 관련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과 이를 부추기는 '폼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민연하면서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서신 아이파크 e편한세상 계약 시기인 23일부터 3일간 시와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등 14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직접조사와 영장신청, 긴급체포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반

## 빛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에 부처님의 자비를 베풀어

### 도내 불교계, 연등축제로 악성부채 해소 기부금 기탁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북지역 불교계가 부처님의 자비를 온누리에 전하기 위해 빛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 전북불교총위원회 (사)지구촌공생회는 19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서 빛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해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앞서, 불교계는 지난 2017년 4월에도 부실채권 소각을 위한 총 2,0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한 바 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향후 장기 부실채권을 저가로 매입해 서민들의 악성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부실채권 소각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취약계층을 돕는 서민금융복지정책을 추진해온 전주시에 는 그간 빛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돕기 위한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단체의 도움의 손길이 늘 이어 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3월 전주시기독교연합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한 후원금 500만 원을 대부업체의 추심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액채무 변제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4대 종교단체가 후원한 후원금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활용돼 현재까지 총 14억2600여만원 상당의 부실채권이 소각됐다. 이를

통해, 전주시민 86명이 빛의 골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소비·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시는 부실채권 소각 외에도 △서민 채무자들에게 파산신청, 개인회생 등 절차를 상담·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금융복지 시민강좌 무료운영 등 전주형 서민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문을 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현재까지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신용회복지원, 금융복지상담, 금융교육을 적극 지원, 현재까지 △2,296건의 상담 △90여명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100명 이하 소액 채무자 19명의 채무에 대한 완전탕감 △협상에 의한 채무조정을 통해 22명의 채무액 17억여원을 7,000만원으로 감면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부처님오신날 전북 불교총위원장은 성우 스님(금산사 주지)은 이날 "전주시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빛 문제에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실행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작은 금액이라도 빛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재기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평생을 빛 독촉에 시달릴 당하는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됐다"이라며 "앞으로도 종교계, 기업체 등 각계계층의 시민들의 후원금을 모아 부실채권 소각 및 소액채무면제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새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전주천 생태 자전거 놀이터에서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전주시는 18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인근에 조성된 전주천 생태 자전거 놀이터에서 미미어린이집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교육에 참여한 20여명의 아동들은 생태 자전거 놀이터에서 자전거 타기 전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규와 보호장구 착용 등 이론교육을 받았다. 또, △출발과 도착 △직진, S자 코스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 건너기 등 연습코스를 주행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 안내판에 따라 자전거로 통행

해보며 안전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웠다.

특히, 교육에 참여한 아동들은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앞서 배운 자전거 타기 전 안전수칙 지켜가며 강사와 함께 자전거 놀이터 코스를 돌며 자전거를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타는 재미에 신나는 시간도 보냈다.

자전거를 배운 아이들은 교육 후에는 앞으로 보호장구를 꼭 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